

## 호스피스의 정착방안

최희자

홍보 분과장 · 가톨릭대학교 성바오로병원 간호부 대팀장



**호**스피스는 국제사회에서 그 나라의 복지수준을 기늴하는 한 지표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OECD에 가입되어 있고, 우리나라 경제수준의 향상은 국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수준을 높여 놓았으나 사람이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생노병사의 과정 중 인생의 마지막 삶에 대한 배려는 제도화 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의료인들도 이에 대해 별로 배운바가 없고, 이런 분야의 교육을 표준화하여 시행하고 있지도 않아 이에 한국의 호스피스 관련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다. 우리나라에는 국가차원에서의 호스피스 지원법이 아직 없기 때문에 제도권 밖에서 호스피스 활동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호스피스가 의료 전달 체계에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제도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호스피스는 의료서비스 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서적, 영적 서비스를 포괄하므로 보건의료의 범위에서 규정 할 수도 있고, 사회복지의 범위에서 규정 할 수도 있지만 어떤 법에 의하든 호스피스를 법적으로 승인하기 위해서는 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호스피스를 법적으로 승인하는 과정은 활동을 규제하기 보다는 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법적승인의 기준은 호스피스 프로그램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호스피스 승인의 기준은 인력, 시설, 서비스, 관리, 책임 등에 관해 설정할 수 있는데 인력기준에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 성직자 등 필수적인 인력의 종류를 명시하고 자격과 교육이수의 의무화를 명시해야 할 것이다. 시설 기준에 있어서는 관련 제실의 설치유무, 규모, 설치장비의 유무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서비스 기준에 있어서는 호스피스 내용에 따라 의료서비스, 사회적 서비스, 정서적지지 등에 대해 명시해야 할 것이다.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수가 지불 형태는 환자진료에 따른 지불보상이 정확하고, 의료서비스 제공 및 이용형태의 합리화가 제고되어야 하며, 수가관리와 진료비 청구, 지급, 심사 등 지불제도의 운영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어야 한다.

호스피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호스피스가 건강보험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인데, 환자에 대해서는 의료보험 급여, 마약의 종류와 용량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관련법 및 의료보험 급여가 인정되어야 하겠다.

말기환자의 호스피스 이용을 활발히 하기 위해서는 호스피스 기관과 일반병원과의 연계체계가 잘 구축되어야 한다. 특히 호스피스 환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말기 암 환자를 진료하는 3차 진료기관과 노인환자를 진료하는 요양원과의 연계는 필수적이며 한국의 의료전달 체계에 알맞는 토착화된 호스피스 모델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호스피스의 전 세계적인 추세가 대상자에게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주로 후원금에 의존하여 운영이 되거나 일부 정부보조금 및 보험금보조 등으로 충당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전적으로 후원에 의존하고 있으나 병원에서 의료보험 청구가 가능한 범위에 대하여 보험금이 보상되고 있지만 행위별 수가체제 하에서는 청구금액이 미비하여 병원에서 호

스피스 활동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호스피스의 재정적 어려움의 근본원인으로 기본자금 조성의 미비를 들 수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공공기금을 조성하고 적극적인 기부금 유치나 후원회 조직과 더불어 지역사회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할 것이며 민간주도의 공익사업을 위한 기부자에게 주어지는 세제상의 혜택이 정부주도의 공익사업 보다 낮게 규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세제상의 폭을 줄임으로써 호스피스활동에 지역사회가 동참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혀야 할 것이다.

호스피스 전문간호사의 일차간호대상자는 생의 말기에 있는 사람과 그 가족들이므로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줄이고 그들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해 이를 돌보는 간호사는 호스피스의 이념과 철학에 맞추어 지식과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Hospice and Palliative Nurses Association에서 제시된 호스피스 간호사가 갖추어야 할 기본능력을 소개하면 첫째, 임상적 판단을 능숙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말기환자와 그 가족이 질 높은 간호를 받을 수 있도록 옹호하고 윤리적인 원칙 하에서 간호에 임해야 한다. 셋째, 투철한 전문적 관을 가지고 간호에 임해야 한다. 넷째, 다 학제간의 협력 능력이 필수적이다. 다섯째, 체계적이며 비판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여섯째, 문화적/영적인 민감성이 있어야 한다. 일곱째, 학습의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여덟째, 훌륭한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아홉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말기 환자의 가족은 죽음을 앞에 두고 있으므로 인생 중에서 가장 극도의 위기에 있게되어 신체적으로는 물론이고 사회적, 심리적, 경제적, 영적으로 다양하고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많은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숭고한 사명감을 지닌 훈련된 인력이 호스피스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실무에서 일반 환자와 차이가 있는 암이나 종양학을 비롯한 호스피스에

대한 특별한 훈련과정 및 교육이 필요하다. 호스피스의 정착을 위해서는 이를 담당할 양질의 인력확보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호스피스활성화에는 의사를 비롯한 의료 인력의 인식도 매우중요하며 말기환자를 진료하는 의사가 호스피스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환자에게 호스피스를 권할 때 호스피스 이용률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호스피스운동은 인생여로의 최후까지 말기환자와 더불어 걷는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삶과 죽음에 대한교육이 중요하며 이러한 교육은 남은 삶 동안 죽음을 준비 할 수 있도록 죽음의과정 및 죽어가는 이의 다양한 문제와 요구에 대한 이해를 촉진 시키는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며 죽음을 준비하여 후회 없는 죽음을 맞이 할 수 있도록 죽음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와 사색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호스피스는 의사,간호사,약사,성직자,사회복지사,영양사,물리치료사,작업요법사,음악치료사,자원봉사자등 다양한 인력이 한 팀을 이루어서 움직이는 종합적인 활동이며 환자들을 치료(Cure)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인간답게 삶을 유지하는 Care 중심이기 때문에 이 일에만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인력이 폭넓게 필요하다. 따라서 호스피스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곧 호스피스 발전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호스피스가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이는 호스피스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무관심과 인식부족이다. 호스피스개념의 확산을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교육과 계몽이 필요하며 이에 관련된 TV나 신문 잡지 및 강연을 통한 사회교육과 계몽을 확대하고 대학의 교과과정에 죽음학(Thanatology)을 개설하여 일반대중의 죽음에 대한 태도변화를 유도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절실히 필요하며 각 분야에서 능동적으로 참여 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호스피스가 정착 되리라 생각한다.